

한라포커스 제주교육위원회도 존폐론 재점화

## 수년째 반복된 논란 일단락 '촉각'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위원제도의 '존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제주특별법'의 교육위원 피선거권 자격 조항(제66조 제2항) 위반 확인 사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요청하면서다. 도의회가 입장 정리를 위한 장교에 들어간 가운데 논의범주와 의견제출방법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 피선거권 제한 논란=현재 논란이 되는 사안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018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 선출 자격 제한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청구한 건이다.

제주특별법 제66조 2항은 '교육위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5년 이상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위헌 여부 도의회에 의견 요청  
 내부 의견 분분... 제출기간 연장하며 입장정리 고심

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 조항이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제한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리보지 말고 소신있는 의견을 제출할 것을 도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교육위원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입된 후 2014년 전국 법률 개정으로 폐지됐지만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유지되고 있다. 고도의 교육자치권 보장과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특유의 교육환경 속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피선거권 제한과 '깜깜이·묻지마 투표' 지적, 무투표 당선 문

제 등을 안고 수년째 '존폐 논란'이 반복돼왔다.

▶ 고심 깊어지는 의회=의회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현재가 당초 5월 29일까지 요청했던 의견제출기간을 6월 29일까지로 한달 연장해 상임위원회, 의원별, 교섭단체별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가 요청한 피선거권 자격 조항 위헌 여부부터 교육위원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 제출 여부 등을 논의의 범주에 놓고, 본회의 의결을 통한 단일안을 제시할지, 다수·소수의견으로 제시할지 등 의견제출 방법론을 두고 감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10일쯤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교육위원회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을 기각한 사례를 인용하며 피선거권 제한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의회 일각에서는 의회 부담 및 내부 갈등 촉발을 우려한 '신중론'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논란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야지 않겠냐는 '결단론'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한 의원은 "의견을 조율해 의회의 의견을 내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의견인 반면, 다른 의원은 "한번쯤은 겪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의견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개별공시지가 작년보다 4.48% ↑

제주시 연동 소재 강치과의원 m<sup>2</sup>당 680만원 최고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 소재 강치과의원의 공시지가가 3.3㎡(1평 기준)당 2244만원으로 도내에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1730원으로 최저가를 보인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황간도)의 땅과 비교하면 1만 3000배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4.48%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증가율 10.7%에 견줘 상승폭이 낮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1번째다. 2015년부터 최근 4년간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나 2018년 이후 인구유입이 정체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지가 상승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도내 공시 대상은 55만 5419필지로 토지이용에 따른 토지분할 발생 등 전년보다 5117필지 증가했다.

지역별 공시지가 변동률은 각각 제주시 4.0%, 서귀포시 5.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 지역이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제주시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도 지역별 상승률은 ▷관리지역 5.56% ▷상업지역 4.36% ▷주거지역 4.16% ▷녹지지역 3.55% ▷공업지역 3.55% ▷농림지역 2.32% ▷자연환경보전지역 1.09% 등의 순이다.

지목별로 보면 ▷공장 5.07% ▷대 4.77% ▷전 4.21% ▷잡종지 4.14% ▷임야 3.95% ▷답 -0.58% 등의 순으로 증감률을 기록했다.

도내 m<sup>2</sup>당 최고지가는 제주시 연동 소재 의원 부지로 680만원이다. 반면 최저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황간도)로 m<sup>2</sup>당 524원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우뚱가사리 말리느라 분주한 손길 28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어민들이 채취한 우뚱가사리를 건조시키기 위해 바다에 널어 펼쳐놓고 있다. 이삼국기자

**제27회 '한라환경대상' 공모 접수 연장**

제주특별자치도와 한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라환경 대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번 한라환경 대상은 '환경을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환경에 대한 UCC 공모전도 함께 진행 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구분	한라 환경 대상 시상		한라 환경 UCC 공모전	
	대상	포상 내용	최우수상 (1팀)	일반 및 대학
최우수상	1명 (팀)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1팀)	상금 200만원
우수상	1명 (팀)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1팀)	고등부 상금 150만원
학교 부문	학교최우수상	1개교 상금 150만원	최우수상 (1팀)	중등부 상금 50만원
	교사최우수상	1명 (팀)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1팀)	초등부 상금 50만원
	학생최우수상	2명 (팀) 중·고등부 50만원, 초등부 50만원		

\* 기 수상자의 경우 수상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수상 자격 부여함

**신청방법** 신청 시 제출한 세부 공적 자료에 대한 서면 심사 (단, UCC 공모전의 경우 촬영된 영상물을 심사)

**시상일자 및 장소** 2020년 6월 29일 (월) / 한라일보사 (제주시 서사로 154)

**제출서류** 신청서 및 추천서 (소정양식) 1부  
 \* 한라일보 홈페이지 (www.ihalla.com)에서 양식 다운로드  
 \* 세부 공적 개요 및 증명 자료 첨부  
 \* UCC 공모전의 경우 영상물을 저장하여 제출

**접수마감 및 문의처** 2020년 6월 12일 (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orca@hallailbo.co.kr)로 접수  
 \* 한라일보 경영기획실 ☎ 750-2523, 750-2540, 팩스 750-2520  
 (\* 자세한 내용은 본보 홈페이지 '제27회 한라환경대상' 배너에서 확인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일보

## 해수욕장 7월1일 개장 코로나 방역은 '고민'

코로나19 상황 속 제주지역 해수욕장이 7월 1일 개장 예정인 가운데 행정당국이 방역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예년처럼 해수욕장을 운영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시는 7월 8개 지정, 10개 비지정 해수욕장의 개장을 앞두고 이달 25일부터 6월 5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시설물 보수와 인명구조장비 구입 등 안전사고예방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된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어려워진만큼

제주 등 국내 해수욕장을 찾는 이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시는 예년 일부 해수욕장에서 운영했던 조기 개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삼양·협재·이호 등 3개 해수욕장이 6월 22일 조기 개장했다.

시는 올해 민간안전요원 200명을 채용해 개장 시기에 맞춰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해수욕장 방역기준을 마련, 감염병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나올 해양수산부나 제주도의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해수욕장별 여건에 따라 파라솔 거리두기와 물놀이 대어물품 소독, 화장실·샤워실·식수대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등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한라일보 갤러리ED 개관기념  
 변시지·강승희·채기선 초대전

# 제주, 제주 너머

2020. 4. 18 SAT - 7. 17 FRI

관람시간안내 평일 11:00-18:00 주말(土,日) 11:00-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문의 : 064-750-2543

채기선 작가와의 만남  
 · 5월 29일[금] 오후 3시  
 · 갤러리 ED[한라일보 1F]

Gallery ED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F

변시지 / 강승희 / 채기선 초대전